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과 전망: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Online Series CO 11-12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가 4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폐막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입은 유보되었다. 전체적으로 별 특징이 없이 일상적인 회무처리만 수행한 회의였다. 금번 회의 의제는 ①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② 2010년 예산 집행의 결산 및 2011년 예산, ③ 조직문제 등이었다. 금번 회의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불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4월 9일에 개최된 제12기 2차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가 불참한 공식적 이유는 4월 6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및 김정은이 자강도 제련소 및 압록강다이야 공장 등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지방시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질적인 이유는 큰 정치적 사안이 없는 데다 후계자 김정은의 상징인 '과학화,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지지도 및 실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시점에 군수산업이 발달한 자강도에서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은 군수산업 발전에 대한 강조와 함께 김정은 시대에는 '특색있는' 방식에 의해 개발한 과학화된 군수산업을 민수화하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미진입이다. 김정은이 2010년 9월 사실상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구도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김정은의 지위를 ‘압축적으로’ 올려주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로의 진입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후계자 수업을 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부문에 대한 업무장악도 가능한 것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국가체제를 이끌어가는 당중앙과 대등한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의외로 건강하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후계자 책봉 당시만 해도 ‘압축 승진’이 고려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김정은의 ‘실무지도’ 능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끌어 올린 후에 직책을 물려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속도조절용일 수도 있다.

셋째, 리명수의 인민보안부장 임명이다. 리명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이다. 74세로서 인민군 대장인 그는 1996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으로 발탁된 후 2007년에 국방위원회 행정국장을 맡아 김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행정국장은 감찰 및 첩보활동이 주 임무이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1992년 4월 25일 인민군창건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김일성 광장에서 “영웅적 조선민인민군에게 영광있으라”라고 외칠 때 옆에 있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2002년 4월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리명수 대장이 지도를 펴놓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문제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군부가 남북 경협문제까지 주관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 핵심에 리명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인민보안부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흐트러지고 있는 사회 및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민보안부장의 임무이다. 특히 있을 지도 모를 민중폭동에 대해 초동단계에서 진압해야 할 책무도 그에게 있다. 따라서 향후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김정일 정권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박도춘의 국방위원 진입이다. 박도춘은 군수산업이 발달한 자강도당 책임비서 출신이다. 그는 2010년 9월 당중앙위 비서가 되었는데 군수관련 비서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도춘이 군수산업을 담당했던 전병호의 후임이 된 것은 군수산업이 발달한 자강도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김정은 시대에 전개될 지도 모르는 군수산업의 민수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자강도 지역은 향후 북중경제 협력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전문가인 박도춘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친정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정치행사였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자신이 건재하는 동안 김정은의 집권능력을 극대화 한 후 점진적으로 최고지위를 이양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지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김일성이 다양한 파벌과의 투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소련후견인론’을 불식시켰고, 김정일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후계자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김일성 후광론’을 잠재웠듯이 김정은도 이의 전철을 밟아야 할 것

이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김정은의 최고지위 획득 속도도 정해질 것이다. 특히 인민경제 활성화, 사회정치적 일탈 차단 등은 김정은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